



서 자란 아름다운 생명을
는 상처의 치유됨을 느꼈
호름에 생긴 상처는 우리
는 곧 나의 흔적이며 삶의
표면의 갈라짐은 그가
안에 드문드문 입혀진
들이 아닌 삶의 일부라는

번 전시를 통해 선보인 작품은 아직은 과정의 일부일
뿐"이라며 "앞으로를 기대해 달라"고 말한다. 부산에
서 계획 중인 내년 전시를 통해 더욱 변화된 작품을 선
보이겠다는 것이다. 계속해서 진화하는 그의 작품이
내년에는 또 어떻게 선보여질지 궁금하기만 하다.

1 전시장 전경

- 2 「시간여행-흔적」 28x28x15cm | 산청토, 산화핀조
- 3 「시간여행-바닷가에서」 28x28x12cm | 산청토, 산화핀조

를 위해 도자기의 기능
가 담을 수 있도록 원형
쓰임이 있는 공예의 기
조금 더 편하게 다가가

간과 상처를 주제로 작
로 풀어내기 위해 다양
찾기도 했다. 그는 "이

2



박정근 개인전

〈길들인 괴물 Tame Monsters〉

2018.12.5~12.10 동덕아트갤러리

엄성도 동덕여대 도예전공 교수

로빈슨 크루소가 "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"라고 하였
듯이 인간은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신의 존
재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삶을 살아간다. 상호간의 교
류로 자극을 받고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사회적 진화
와 더불어 공고한 연결망을 구축하게 되고 비로소 존
재에 대한 확신과 안정감을 갖는다. 네트워크의 주 대
상은 인간이지만 사물이 대상이 되기도 한다.

대표적인 사물이 키덜트(kidult)를 위한 캐릭터라고 할
수 있는데,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확장되어 인간의
삶속에 자리 잡고 있다. 이러한 캐릭터는 현대사회에
들어 기능을 떠나 더욱더 정서적 삶에 깊이 관여하고
있다. 박정근의 '길들인 괴물'도 이러한 범주로 이해할
수 있다.

여성들에 있어서 명품가방 만큼이나 남성들의 자동차
에 대한 관심은 각별하며 사물 이상의 의미가 부여되
기도 한다. 이번 전시는 작가가 관심을 두는 삶의 주변
에서 상호영향을 미치는 사물들 가운데 특별히 유기
체화 시킨 괴물자동차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
기 한다.

'길들인 괴물'은 내가 좋아하는 일상의 사물 중 하나인

자동차를 소재로 한 작업이다. 자동차는 산업화를 통
해 대중화된 대표적인 사물이면서 삶의 모습을 가장
많이 변화시킨 사물이다.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동시
에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수없이 많은 현대의
사물과 그 주변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소재이다. "이러
한 배경의 작품들은 표현 방식에서도 새로운 관점으
로 바라볼 수 있다. 도판이나 오브제에 색화장토를 다
층으로 도포한 후 자신이 관심을 갖는 사물들을 새기
고 굽어내어 상층이 드러나게 한다. 그 과정은 전통적
분장기법의 시문이지만 드러난 결과는 다르다. 태토
위에 분장된 색토의 레이어를 자신만의 감각으로 굽
고 벗겨냄으로서 사물들이 미세한 두께 차이를 보이
며 네거티브 형태로 구축해간다. 그런 의미에서 상당
히 회화적이며 조각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. 자세히 들
어다보면 네거티브 필름의 느낌도 난다. 관람객들은
이를 작업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현상으로 볼
수도 있지만 작가가 사진을 좋아하기 때문에 관련성
을 유추하게 된다. 그는 작업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반
복적 새김질을 한다. 재료와의 직접적인 교감이 오랜
시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. 공예가 갖는 특징 중 하
나가 재료와의 교감을 통한 표현이므로 작가는 당연
히 소재와 기술의 연관성을 재인식하고 각각의 소재
로부터 태어나는 조형의 적절성에 대해 다시금 세롭
게 주시해야 한다. 21세기의 공예는 소재와 기술, 과
정을 통해 드러나는 '공예적 조형'에 시선을 두고 있다.
이는 '공예적 힘'을 통하여 구현되며 그 힘은 소재와 작



사진 편집부

2



가의 관련성에 의해 발휘된다. 소재와 작가의 관련성
은 아날로그적인 체득 과정을 통해 완벽한 조형언어
로 구현되는데 '길들인 괴물'에서 이것들이 확인되고
있다. 작가가 흙이라는 소재와 범위를 좁혀 화장토에
자신의 조형언어를 구사하게 되면 이는 바로 공예적
조형, 즉 공예적인 기술(르페)에 이미 접근되어 있다고
할 수 있다. 박정근은 화장토에서 자신의 조형언어를
표현하고 세계관을 구축시킬 수 있으며, 소재와의 직
접적인 관계로 재료에 대한 기술적인 면이 숙성과정
을 거쳐 체득화 되었다고 보여진다. '길들인 괴물'작품
을 딱히 공예의 범주로 한정짓고 싶지 않다. 그냥 조형
이고 회화이며 조각이다. 미세하게 들여다보면 구축
과정이 건축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. 앞으로 공예
가 확장되어 회화, 조각, 건축적 요소들을 거침없이 드
러내고 연결하는 역할에 있다면, 그의 작업과정과 작
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.

1 전시장 전경(오른쪽 앞) 「길들인 괴물 1812」

2 「길들인 괴물 1822」